스포츠동아-골프버디 아마추어골프대회 1차 예선

강원도 고수 최종부, 강풍 뚫고 우승

우승후보 이해영·이정재 대거 탈락 속
이븐파 72타 1위…"쇼트게임 잘 됐다"
신페리오 이정일·여성부 이연희 1위



12일 경기도 여주 스카이밸리골프장에서 열린 '2014 스포츠동아-골프버디 아마추어골프대회' 1차 예선에서 부문별 1위에 오른 입상자와 대회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골프버디코리아 허원영 대표이사, 스트로크 부문 1위 최종부, 여성부 1위 이연희, 신페리오 부문 1위 이정일.
사진제공 | 골프버디코리아

강원도 아마추어골프대표로 활동 중인 최종부가 강풍을 뚫고 '2014 스포츠동아-골프버디 아마추어골프대회' 1차 예선 스트로크 부문 정상에 올랐다.

최종부는 12일 경기도 여주 스카이밸리골프장(파72)에서 열린 1차 예선 스트로크 부문에서 버디와 보기 1개씩을 기록하며 이븐파 72타를 쳐 1위로 예선을 통과했다. 강풍이 몰아쳐 참가선수 대부분이 힘든 경기를 펼친 가운데, 최종부는 안정된 쇼트게임으로 정상을 지켜냈다. 전반 9홀에서 보기 1개를 적어냈고, 후반에는 보기 없이 12번홀(파3)에서 버디를 낚았다. 한기용, 조용수, 박운호, 김영철이 나란히 1오버파 73타를 쳐 2~5위로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강릉 출신의 최종부는 강원도 지역에서 내로라하는 실력파 골퍼다. 지난해 강원도지사배 아마추어골프대회 개인전 우승을 비롯해 강원일보배 아마추어골프대회 우승, 볼빅 골프동호회 단체전 우승 등 수 차례 정상을 맛봤다. 베스트 스코어는 67타이며, 10년째 강원도 아마추어골프대표로 활동 중이다. 최종부는 "바람이 많이 불어 힘든 경기였지만, 쇼트게임이 잘 돼 타수를 잃지 않았다"며 "이 대회에선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많지 않다. 올해는 일찍 예선을 통과한 만큼 결승전을 잘 준비해 꼭 우승하고 싶다"고 밝혔다.

강풍 속에 우승 후보들이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변이 속출했다. 지난해 준우승을 차지했던 이해영, 전통의 강호 이정재, 이 대회 역대 최저타 기록 보유자 서왕석, 아마추어무대를 주름잡아왔던 장호엽 등의 강자들은 스트로크 부문 15위에 들지 못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장호엽은 "바람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다음 2차 예선에선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며 아쉬움을 달랬다.

5장의 결승 티켓이 걸려 있는 여성부에선 이연희가 5오버파 77타를 쳐 가장 먼저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뒤를 이어 강귀숙과 김수민이 10오버파 82타로 예선 통과의 기쁨을 맛봤다. 신페리오(핸디캡 적용) 부문에선 그로스 스코어 77타를 친 이정일(스트로크 부문 21위)이 핸디캡 9.6을 적용받아 네트 스코어 67.4타로 1위에 올라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1차 예선을 마친 스포츠동아-골프버디 아마추어골프대회는 6월 9일 충북 청원군 실크리버골프장으로 장소를 옮겨 2차 예선을 펼친다.

여주 |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 스포츠동아-골프버디 아마추어골프대회 1차 예선 입상자

	순위	선수	성적
스트로크 부문	1	최종부	E(72)
	2	한기용	+1(73)
	3	조용수	+1(73)
	4	박운호	+1(73)
	5	김영철	+1(73)

	순위	선수	성적
여성부	1	이연희	+5(77)
	2	강귀숙	+10(82)
	3	김수민	+10(82)
	4	최인영	+11(83)
	5	강정이	+13(85)

	순위	선수	성적
신페리오 부문	1	이정일	G77(H/C9.6)N67.4
	2	이선묵	G75(H/C6.0)N69
	3	서효석	G81(H/C12.0)N69
	4	서왕석	G82(H/C12.0)N70
	5	임내락	G82(H/C12.0)N70

주최: GolfBuddy 스포츠동아

박준원 "8년만의 우승…나의 한계를 넘은 결실"

■ 매경오픈 우승 박준원

초등 6학년 입문…동네 사고뭉치 탈출
173cm 작은 체격에 드라이브샷 한계
나만의 아이언샷 지옥훈련…V 원동력

"까불까불하고 동네에서 소문난 사고뭉치였는데, 골프가 내 인생을 바꿔놨다."

11일 끝난 제33회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 프로 데뷔 8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한 박준원(28·코웰). 그에게 골프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준 선물이다. 박준원은 초등학교 시절 동네에서 알아주는 사고뭉치였다. 그러다 6학년 때 골프를 배우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골프를 하면서 성격이 내성적으로 바뀌게 됐고, 누군가에게 의지만 해왔던 내가 혼자서 해결하는 능력을 갖게 됐다. 골프는 나와 잘 맞는 운동인 것 같고, 골프를 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렇다고 골프선수로 큰 성공을 거둔 적도 없었다. 주니어 시절에는 김경태(28), 강성훈(27), 김도훈(28·이상 신한금융그룹) 등 쟁쟁한 선후배들의 틈 속에서 이름 한번 제대로 날려보지 못했다. 프로생활도 고됐다. 아시안투어를 거쳐 2011년 KPGA 투어에 입성했지만, 우승트로피 한번 들어올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골프는 늘 즐거웠다. 박준원은 "크게 성공을 거둔 적은 없지만, 하기 싫은 적도 없었다. 골프를 하면 할수록 더욱 매력을 느끼게 됐고, 안 될 때도 후회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부족함은 노력과 땀으로 극복했다. 박준원은 골프선수로선 좋은 체격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173cm의 키로는 장타를 날리기가 쉽지 않았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신만의 장점을 만들어 한계를 극복했다. 그는 "체구가 크지 않기 때문에 드라이브샷을 멀리 때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렇기에 다른 장점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다. 남들보다 더 정확한 아이언샷을 치기 위해 노력했고, 쇼트게임과 퍼팅 훈련도 더 많이 했다. 그런 노력이 이번 우승의 힘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준원의 아이언샷은 동료 선수들 사이에서도 정확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땀의 결과를 알게 된 박준원은 새로운 다짐을 했다. "1승에 그치는 선수로 남지 않겠다. 2승, 3승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겠다. 이제부터가 더 기대된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박준원(코웰)이 11일 경기도 성남 남서울골프장에서 펼쳐진 제33회 GS칼텍스 매경오픈 최종 4라운드에서 아이언샷을 날리고 있다. 박준원은 이번 대회에서 프로 데뷔 8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했다.
사진제공 | KPGA

전 세계 1위 카이머 '18억5000만원' 잭팟

美 PGA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
최경주는 최종일 뒷심…공동 13위

전 세계랭킹 1위 마르틴 카이머(독일)가 우승상금 18억50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카이머는 1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 비치의 소그래스TPC(파72)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총상금 1000만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합계 13언더파 275타를 쳐 짐 퓨릭(미국·12언더파 276타)을 1타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우승상금은 180만달러.

카이머는 2011년 타이거 우즈(미국)가 부진에 빠진 사이 세계랭킹 1위에 올라 주목받았다. 그러나 자리를 오래 지키지 못했고, 2012년 유러피언투어 네드뱅크 챌린지 우승 이후 부진에 빠졌다. 지난주 발표된 세계랭킹에선 61위까지 떨어졌다. PGA 투어 우승은 2010년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 이후 약 4년 만이다.

한국선수 중에선 '맏형' 최경주(44·SK텔레콤)의 활약이 돋보였다. 1라운드에서 101위로 부진하게 출발했던 최경주는 2라운드부터 꾸준히 순위를 끌어올렸고, 최종일 7타를 줄이는 뒷심을 발휘한 끝에 공동 13위(합계 7언더파 281타)를 기록했다.

주영로 기자


마르틴 카이머가 1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 비치의 소그래스TPC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있다.
폰테베드라 비치(미 플로리다주) | AP뉴시스

토토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연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체육복표사업·일명 스포츠토토)의 새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가 연기됐다.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 과정을 진행했던 조달청 관계자는 12일 "당초 오늘 발표 예정이었지만, 사정이 있어 연기됐다. 2~3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체육복표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조달청은 8일 새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을 마감한 뒤 11일까지 6개 컨소시엄이 제출한 관련 서류와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 기술평가를 진행했다. 총 1000점 만점으로 진행된 기술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최종 협상을 벌이게 된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주현정(현대모비스)이 콜롬비아 메데린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연맹(WA) 2차 월드컵(13~18일)에 앞서 '로빈 후드 애로우'를 기록한 뒤 활짝 웃고 있다. '로빈 후드 애로우'는 나중에 쏜 화살이 앞서 표적에 꽂힌 화살을 관통하는 것으로, 신궁들 사이에서도 진귀한 경험으로 꼽힌다.
사진 출처 | 대한양궁협회 공식 페이스북

주현정, 로빈 후드 애로우!

〈나중에 쏜 화살이 과녁에 꽂힌 화살을 관통〉

콜롬비아 양궁월드컵 앞둔 훈련서 진기록



주현정의 '로빈 후드 애로우' 소식은 콜롬비아 현지 신문에도 보도됐다.
사진 출처 | 대한양궁협회 공식 페이스북

세계양궁연맹(WA) 월드컵 출전을 위해 콜롬비아에 머물고 있는 주현정(32·현대모비스)이 '로빈 후드 애로우'를 기록하며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오진혁(현대제철), 구본찬(안동대), 이승윤(코오롱), 김우진(청주시청·이상 남자), 주현정, 정다소미(현대백화점), 이특영(광주광역시청), 장혜진(LH·이상 여자) 등 양궁대표팀은 콜롬비아 메데린에서 열리는 WA 2차 월드컵(13~18일)에 출전하기 위해 5일 출국했다. 25시간에 걸쳐 지구 반대편까지 이동하다보니 우여곡절도 겪었다. 대표팀은 미국 시카고와 마이애미에서 2번 비행기를 갈아탔는데, 짐 가방 4개가 뒤늦게 도착해 애를 먹기도 했다. 그러나 '액땜'을 한 뒤 정작 훈련에 들어가자 신기에 가까운 장면을 연출했다.

'대표팀 맏언니' 주현정은 최근 70m 훈련에서 10점 표적에 '로빈 후드 애로우'를 기록해 화제를 모았다. 로빈 후드 애로우는 나중에 쏜 화살이 앞서 과녁에 꽂힌 화살을 관통하는 것을 뜻한다. 1991년 개봉한 영화 '로빈 후드'(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명장면에서 유래된 말이다. 한국선수 가운데는 기보배(광주광역시청)가 2011토리노세계선수권 예선 라운드 60m에서 기록한 적이 있다. 콜롬비아 현지 신문은 '신궁의 나라'에서 온 주현정의 로빈 후드 애로우를 사진과 함께 알렸다.

주현정은 2008베이징올림픽 단체전 금메달, 2009울산세계선수권 개인·단체전 2관왕, 2010광저우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 등을 일군 한국여자양궁의 대들보다. 윤옥희(예천군청), 기보배가 대표선발전에서 탈락한 가운데 실질적인 대표팀의 에이스로 꼽히고 있다. 대한양궁협회 서거원 전무이사는 "로빈 후드 애로우는 대표팀 선수 전원이 1년 동안 활을 쏘면서 1번 나올까 말까 한 진기록이다. 운이 따라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어야 달성할 수 있다. 10점 표적에 많은 화살을 넣어야 로빈 후드 애로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제대회에 나가보면, 확실히 한국선수들이 로빈 후드 애로우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주현정의 현재 컨디션이 좋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대한체육회, 14일 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

대한체육회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경기단체, 시도체육회, 체육학계 등 체육계 인사들을 초청해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 전형수 신임 코치 선임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은 12일 2013~2014시즌을 끝으로 남자프로농구 오리온스에서 은퇴한 전형수(36)를 신임 코치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전 신임 코치는 김지윤 코치와 함께 새 사령탑 정인교 감독을 보좌한다.

나달, 무투아 마드리드 오픈 결승서 기권승 우승

세계랭킹 1위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12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무투아 마드리드오픈 단식 결승에서 니시코리 게이(일본·세계랭킹 12위)에 기권승을 거뒀다. 1세트를 게임스코어 2-6으로 내준 나달은 2세트를 6-4로 따낸 뒤 3세트 게임스코어 3-0으로 앞선 상황에서 니시코리가 엉덩이 부상을 이유로 경기를 포기해 2년 연속이자, 통산 4번째 이 대회 정상에 올랐다.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